

■ 2023년도 대본공모 연극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분야
- 회의일시
 - 1차 예심 : 2023년 3월 17일(금)~6월 9일(금) 총 84일 / 온라인심의
 - 2차 본심 : 2023년 6월 13일(화) 15: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동시대성을 지닌 우수 희곡을 발굴하고 극작가들의 지속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분야 사업을 통해 최종 12편의 희곡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1차 심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를 고려하여 전담 심의 위원제를 통해 위촉된 7인의 심의위원들이 약 3개월 동안 238편의 지원작(23편의 결격 지원작 제외)을 대상으로 온라인 블라인드 채점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품의 예술성(80%)과 무대화 발전 가능성(20%)이 기준이 된 이 평가 결과는 6월 13일 대면 심의위원회에서 공유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심의위원으로부터 최상위 점수를 받은 지원작은 전무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1차 심의 결과의 종합 평점을 통해 상위권으로 기재된 지원작들을 순위대로 하나씩 숙고하며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의위원 간 의견 차이가 상당했지만 몇몇 작품의 경우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신선하면서도 유연한 무대 언어의 사용, 동시대인들의 삶을 증언하고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가 의식의 존재 여부 등에 주목하면서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선정작품을 결정하기 위한 2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2편의 지원대상작과 2편의 예비후보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본공모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각 작품 당 지원 액수가 결정되었던 작년과 달리 12편의 선정된 희곡 모두에 각각 1천만원씩 지원하는 정액 포상금 지급제가 채택된 바, 개별 선정 작품에 대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별도의 논의는 불필요하였습니다.

올해 연극분야 대본공모에 지원한 작품들은 주제와 형식 면에서 매우 다양했지만 무대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작품, 소재의 새로움이나 인물의 비범성, 연쇄적 사건 전개에 긴장감 등에 함몰되어 주제의식이 부재한 작품도 상당수였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완성도 높은 지원작 중 다수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여전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지나온 역사 속에서나 또는 작금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을 다양한 형식으로 다루어내는 작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투하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작가적 시선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분야에 지원하신 작가 여러분 모두의 열의에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선정되신 작가님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지원사업이 여러분 모두의 열정을 담아낼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대본공모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분야
- 회의일시
 - 1차 예심 : 2023년 3월 23일(목)~5월 30일(화) 총 68일 / 온라인심의
 - 2차 본심 : 2023년 6월 2일(금) 10:00~13: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지원은 참신한 대본과 음악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힘겨운 창작 과정을 거쳐야 하는 창작자에게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고 한국 뮤지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성과 신인을 가리지 않고 좋은 작품을 발굴하고 응원하려는 의미가 큼니다.

대본공모의 심의는 작품의 예술성(80%), 작품의 무대화 가능성(20%)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심의위원 당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다를 수 있었지만 작품의 예술성, 즉 소재나 주제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지 동시대 관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인물과 주제인지, 특히 뮤지컬로서 음악과 대본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극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대본과 음악으로 무대화 과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장 내에서 제대로 자리잡고 발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공통의 지표로 삼아 심사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총 78건이 신청하였으나 자격요건에서 부적합한 15건을 제외한 총 63건이 1차 심의 대상이었으며, 극작, 연출, 평론, 음악, 기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인이 개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2차 본심에서는 상호 토론하여 최종 선정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작들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아티스트를 소재로 한 작품이나, 타임슬립 등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물, 그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AI나 여성서사 등 트렌디한 소재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만, 그외에도 유튜버를 소재로 하거나, 나와 가족, 내 주변의 이야기를 시도하는 작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주변 소재보다는 해외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원한 모든 작품이 기발하고 진솔함을 담고 있어 저마다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소재에만 머물고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획이 더 발휘되어야 할 작품들도 적지 않았고, 소재나 인물은 매력적이었지만 뮤지컬 장르의 형식에 어울리지 않은 작품들은 보완을 거쳐 다음 기회를 얻을 거라 보고 이번 지원에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우수 대본, 음악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공연화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 공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대본 단계이기 때문에 공연화 가능성 자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살피지는 않았으나 대중예술인 뮤지컬인 만큼 시장적인 관점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 간의 주안점을 두는 요소는 조금씩 달랐지만 서로 토론을 통해 각 세부작품의 장단점을 앞서 언급한 기준으로 살피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결론이 이르지 못한 작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룰을 정하고 최종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2년 2개월>, <비화>, <투타입>, <The Makers>, <나를 닮은 적>, <뮤지컬 적토>를 최종 지원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적토>는 소재와 형식의 신선함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22년 2개월>과 <비화>는 소재는 익숙하지만 이 작품만의 개성과 안정적인 극 구조와 전개에서 좋은 평을 부여 하였습니다. <The Makers>와 <투타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무리 없이 극으로 완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나를 닮은 적>은 엄마와 딸의 끝 모를 갈등을 유쾌하고 공감가는 스토리로 풀어낸 점을 높게 평가 하였습니다. 작품마다 장단점이 있고 평가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선정된 작품들은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정자들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이번 기회를 얻지 못한 지원자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지원한 모든 작품이 무대에 올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3 대본공모 창작뮤지컬분야 심의위원 일동